

李退溪철학에 있어서의 自然과 人間의 에코로지**

—『天命圖說』을 통해서—

高 橋 進*

• 目 次 •

- | | |
|---|-----------------------------|
| I. Konfuzianismus와 Taoismus에
있어서의 자연의 개념 | 3. 物은 어떻게 해서 生하는가? |
| II. 이퇴계에 있어서의 天·人·物의
관계의 사상 | 4. 人과 物은 왜 다른가? |
| 1. 天과 人은 「一理」 | 5. 사람의 차이와 수양 |
| 2. 人·物의 생성과 理·氣의 작용 | III. 사람과 物과 자연의 에코로지의
철학 |

I. Konfuzianismus(유교)와 Taoismus(도교)에 있어서의 자연의 개념

유가사상에 있어서의 「자연」이란 개념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나 일반적으로는 세계, 존재하는 것의 전체, 일월성신·산천초목, 천지 등을 의미하고 때로는 「天」을 의미하고 있었다. 그러한 의미로서는 이른바 'Natur'와 同義라고 하여도 좋다. 그 'Natur'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떠한 작용을 그 속에서 발견하고, 인간은 거기에 어떻게 위치 매김되어 있었느냐의 문제는 철학적으로든 윤리학적으로든, 어쨌든 결국 「세계와 인간」의 문제에 귀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가사상에 있어서의 자연

* 目白大 학장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75·76호(1992) 게재논문

의 개념은 극히 중요한 사상적 의미를 가지면서 도가사상의 중핵을 이루고 있으며, 단적으로 말하자면 「無爲」를 주로 하여 無用의 作爲(공연한 참견)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도리어 모든 物(사람을 포함하여)은 그 본래의 생명에 따라 살 수가 있다고 도가사상은 주장하였다. 유가사상은 作爲·積極을 테에제로 하였으므로 도가사상의 無爲·消極과는 일견 다르다. 그러나 「뿌리는 같고 줄기가 다르다」고 일컬어지듯이 양자의 주장의 근본은 「어떻게 하여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느냐」라는 점에서 공통적이었다. 「자연」의 개념은 이 적극론과 소극론의 차이에 의해 양자의 생각이나 내용도, 특징은 있으나 사람의 눈에 보이는 'Natur'로부터 반성적으로 배워 온 것이라는 점은 같다.

이 보고에서는 조선조시대 전기에 나온 이퇴계(1501~1570)가 사람과 자연의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였는가를, 그 작성에 그가 깊이 관여한 『天命圖說』(이하 「圖說」이라 함)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이퇴계에 있어서의 天·人·物의 관계의 사상

먼저 이 「圖說」과 이퇴계와의 관계에 대해 서술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圖說」은 본시 鄭之雲의 作이다. 이퇴계가 중앙정부의 관료로서 서울에 살고 있을 때 쯤, 그의 조카가 어느날 「天命圖」 및 「天命圖說」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다. 그가 그것을 본 즉 자못 잘못 된 점이 있었다. 얼마 있다가 그 작자를 알아, 정지운과 회견하여 그 잘못을 지적하였다. 수 개월 후에 그가 정정한 것을 이퇴계는 보았으나 의연히 적절치 못한 곳이 있어 재3에 걸쳐 이퇴계는 이 「도설」을 개정하였다. 그 사이의 사정을 그의 제자 趙士敬은, 완성된 「도설」의 발문(1558)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 圖說은 1553년에 서울에 계셨던 선생이 鄭公과 개정한 것으로, 그 정밀

하고 미묘한 곳은 모두 선생의 발상에 의한 것이다. 1553년의 봄에 선생은 고향에 돌아와 그 곳에서 또 상세히 생각하여 改修한 바 자못 많았다. 그러므로 초본과 심히 異同이 있다.

이에 의해 알 수 있듯이, 「도설」은 정지운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실제로는 거의 이퇴계의 作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개정되었다. 후세의 사람들이 이퇴계의 작으로 보는 것은 이상과 같은 경위에 의한 것이다.(상세함은 高橋進 著, 『이퇴계와 敬의 철학』 pp.115-130 참조) 이것을 전제로 이하에서는 이퇴계 사상에 있어서의 「사람과 자연」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天과 人은 「一理」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도설」은 天命圖와 說로 성립되어 있고, 說은 10절로 나누어 문답형식으로 논술되어 있다. 제 1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이 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첫째로 ‘天則理’라 하여 그 理로서의 天의 德(作用)에는 元·亨·利·貞의 네 개가 있는 것, 四德이 理로서 작용할 때에는 始(시작함)의 理, 通(통함)의 理, 遂(나아감)의 理, 成(이룩함)의 理로 되는 것, 이 네 가지 理로서의 天德은 서로 순환하여 그만둬 이 없는 것 등을 명확하게 논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둘째로는, 個物의 구체적 생성에 관한 二氣·五行이 작용할 때에는 이 四德·四理는 반드시 개물에 내재하고 개물의 생성과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것을 서술하여 天의 四德·四理와 陰陽五行 내지는 個物과를 관계지우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는, 그 個物의 생성과 존재의 근거로 되는 것이 「性」이고 거기에는 仁·義·禮·智·信의 五常의 德이 있고, 그리하여 天의 四德과 인간에 있어서의 오상과는 天의 理로서의 「一理」의 발전이어서 天과 人은 이 「一理」로 일관되어 있고 통일되어 있다.

넷째로는, 인간에 있어서의 聖과 愚, 혹은 人과 物의 차이는 氣의 작용에 의한 것, 天의 四德·四理의 본래의 작용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

2. 人·物의 생성과 理·氣의 작용

이상의 몇 가지가 제 1절의 사상적 특질이다. 제 2절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제 2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첫째로 天이 이미 四德을 가지고 있어 만물생성에 관여한다고 한다면 五行은 사물의 생성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 여기에서는 理와 氣(五行과 氣의 작용이다)의 논리적·구체적·현실적인 관계가 만물(個物)의 생성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묻어지고 있다. 그 답은 「元·亨·利·貞의 天의 四德, 따라서 始物·通物·遂物·成物の 理로서의 작용은 木·火·金·水의 五行의 氣에 의해 각각 받아들여져서 個物이 생하고 성장하고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감추어진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곧 이것을 도식적으로 말하면, 元→木→生物, 亨→火→遂物, 利→金→收物, 貞→水→藏物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다. 처음의 →는 「받아들이는」 작용을 나타내고, 다음의 →는 그 「결과·공적」으로서의 작용을 표시한다. 오행이라고 하면서 土의 氣가 없는 것은, 土는 四氣의 각각에 충분히 보급되어 확산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자는 元·亨·利·貞의 四德에 관하여, 그것을 곡물에 비유하여 싹이 나오는 것, 성장하는 것, 열매 맺는 것, 곡물로서 저장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제 1절에서 理로서의 天의 四德의 작용이 「순환하여 마지 않는다」고 서술한 것은, 이것을 곡물의 예로 생각을 해 보면 알기 쉬울 것이다.

둘째로, 주자의 理의 성격에 대하여, 동아시아에서는 역사적으로 理는 能動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아니 理는 아무런 작용도 없이 단순히 의미적인 존재이다라는 것의 두 가지로 해석되어 양론되어 왔다.

이퇴계는 주자의 理의 성격의 애매함을 극복하여, 理의 능동인적 성격을 지극히 명확하고 또한 합리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아 중요한 것이다.

다음의 제 3절은, 理와 氣가 각각 다른 작용을 가지고 있으나 理의 밖에 氣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氣의 밖에 理가 있는 것도 아닌, 양자는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과, 하물며 음양과 오행은 二物이 아니어서 五行도 一陰陽이고 반드시 四德을 포함하여 각각 그 「性」을 하나로 하고 있다는 것 등을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제 2절의 論을 받고 있어 당연한 것을 서술한 것 뿐이다.

3. 物은 어떻게 해서 生하는가?

그런데 四德과 오행의 관계(제 2절)에서 나아가 個物이 生하는 근본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제 4절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 四德과 오행의 관계에 있어서는 元은 始物의 理이며 木氣가 이것을 承受하여 物을 生한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物이 生하는 근본의 論에 언급한다. 즉 物이 生하는 것은 貞의 德으로서의 成物의 理에 근거하는 水의 藏物의 氣라고 하고 있다. 이에 의하여 元·亨·利·貞의 四德의 작용이 始物로부터 成物에 이르러 완결되고 종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貞으로부터 元으로, 成物의 理로부터 始物의 理로, 水의 藏物의 氣로부터 木의 生물의 氣로 순환하여 가는 것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논리는 매우 구체적인 종자(씨)→맹아(싹이 나다)→성장(크다)→결실(열매 맺다)→수장(거두어 들여 창고에 넣어 두다)의 반복(순환)을 반영한 것이다.

4. 人과 物은 왜 다른가?

다음에 人과 物은 똑같이 天의 四德으로서의 理와 氣에 의해 生하고 있는데 왜 양자의 차이가 생겨나는가? 이미 제 1절에서 그것은 氣의 작용에 의한다고 하여졌다. 천지 사이에 작용하는 理는 하나이지만 氣는

다양하게 변화하여 다양한 物을 만든다. 理의 본체는 「虛」(Leere)이고 비상대적·보편적이므로, 사람이든 物이든 모든 個 속에 내재한다. 그것에 대해서 氣는 음양으로 나뉘어져 대립적으로 작용하며 陰中에 陽이 있고 陽中에 陰이 있으며 더 나아가 陰中の 陽에 또 陰이 있고 陽中の 陰에 또 陽이 있다. 이와 같이 陰陽 二氣의 작용은 복잡하게 무한한 다양성을 가지고 전개하므로 이 세계에 다양한 사물이 존재한다. 이것이 제 5절의 요점이다. 그 중에서도 사람은 바른 陽의 氣를 받아 잘 널리 미치고 밝은데 비해, 物은 치우친 陰의 氣를 받아 잘 통하지 않고 어둡다고 정의한다. 또 鳥獸는 치우쳐는 있으나 바른 氣를 받아 一路에 통하고, 초목은 치우친 氣를 받아 통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설명은 물론 과학적이지는 않으나 주자에 있어서도 거의 같은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똑같이 생명을 가진 존재라도 사람을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로 보고 그것과 동물·식물과를 구별하려고 하는 것은 동서의 사상에 있어서 변함이 없다. 모든 존재는 理를 하나로 하고 氣를 하나로 하지만 생성의 결과에 있어서는 人과 物과의 차이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다.

5. 사람의 차이와 수양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사람은 天의 四德·四理를 갖추고 가장 뛰어난 正氣를 받고 있으므로, 본성적으로 五常으로서의 보편의 덕을 마음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체도 또 氣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므로 마음의 오상이 그대로 발동하면 그 행위는 순수하게 선이어서 악은 없으나, 氣의 발동은 喜·怒·哀·樂·愛·惡·欲의 감정으로 되어 거기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다고 설명한다. 제 6·7절이다. 따라서 사람에도 氣의 작용의 양식에 따라 뛰어난 智者, 보통의 사람, 열등한 사람이라고 하는 차이가 생긴다. 그러나 그것은 결정적인 차별은 아니고 天理 아래에서는 사람의 노력과 수양에 따라 善·美를 실현할 수가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사람은 마음에 敬(ching, die Geisteshaltung, d. h. geistige

Selbstdisziplin, Selbstkontrolle, Umsicht üben, alert sein, geistige Konzentration im Toegye)과 存養(tsung-yang, der Vervollkommung des Selbst)을 견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Ⅲ. 사람과 物과 자연의 에코로지의 철학

위에 서술해 본 바에 의해 알 수 있듯이 이퇴계 철학에 있어서는 宋學 특히 주자학 보다도 天命관념은 한층 희박해져서 논리의 전면에 나오지 않게 되어 있다. 天이 절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상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하는 사상은 중국 고대에 있어서는 일반적이었다. 공자에 있어서는 지상의 인간의 덕이 있는 행위가 중시되고 강조되었는데 그래도 天에의 畏敬의 念은 가지고 있었다. 신유학(Neokonfuzianismus)의 기수였던 주자에 있어서조차도 天의 命에 의해 人의 性·物의 理가 주어지는 것, 天의 命에 의해 사람의 장수와 단명이 정해진다고 생각되었었다.

그런데 이퇴계에 이르러서는 天이 그대로 理라고 정의하고 거기에서 天의 四德·四理를 도출하고 人과 物의 생성의 즈음에는 氣가 그 四德·四理를 받아들이므로 사람에는 性이 내재하고 物에는 理가 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天의 명령에 의해 사람에게 性, 物에 理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天의 理로서의 작용이 物의 생성에 간여되므로 物이 生할 때 저절로 理가 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의해 天과 人은 一理에 의해 불가분리적으로 통합되었다.

여기까지의 서술은 이제 분명해졌듯이 「天」은 작용을 가진 理로서의 조화(die Schöpfung)의 성격과 우주론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자연적 세계 내지는 이른바 자연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다. 그리하여 자연과 인간은 따로따로의 존재가 아니고 서로서로 에코우하는 존재로서 내지는 같은 理와 氣에 의해 태어난 존재로서, 物을 포함한 「일체적인 세계관」에 의해 통합되어 있다.

근대 이후의 과학·기술의 고도한 발달로 말미암아 자연은 단순한 실험이나 관찰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따라서 사람과 자연은 한없이 분리되고, 드디어 자연은 인간에 의해 정복되는 대상으로까지 물질화되어 버렸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자주 사용되는 「자연의 섭리(Vorsehung)」란 말은 「圖說」에 있어서의 天의 四德·四理와 거의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퇴계 철학에 있어서의 자연(天)과 사람과 物의 상응관계를 확립한 에코로지는 지극히 중요한 현대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안 병 주 譯)